



- 리더감사 뱅킷
- 주안에만남
- 2024 새해소망
- 교육부 / ICY 수련회

주안에교회 InChrist Community Church   ph. 818.363.5887 | 문서국 e-mail: icccnews123@gmail.com | web: icccla.org



소채플 신축공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성도들이 공사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 사진: 양영 기자 >

■ 소채플 공사 감사기도

지난 12월 17일 2부 예배 후 최혁 목사님과 교인들이 소채플 건축 현장을 둘러보고 건축 중인 건물 내부에 들어가 함께 이제까지 건축이 이뤄지도록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건물이 순조로이 완공되기를 간구하는 기도 시간을 가졌다. 소채플의 구조와 용도 그리고 앞으로 이뤄질 공사 내역을 간략히 소개하면 * 크고 작은 4개의 소채플 중 가장 동쪽에 위치한 것이 제일 규모가 큰 데 이 채플은 완공 후 새벽기도와 각종 교회 행사에 이용되고 EM 예배실로 주로 활용될 것이라 한다. 이 채플엔 본당에 준하는 음향 시설과 전면에 스크린이 설치되게 된다.

* 동쪽에서 두 번째 채플은 ICY(중.고등부)가 사용하고 셋



째 채플은 IC NOW/POWER (유.초등부) 넷째 채플은 IC JOY/HAPPY/LOVE (유치부 유아부 영아부)가 사용하게 된다.

* 건물 서쪽 편 공지에는 어린이 놀이터가 조성되고 본당 전면 레몬 밭에는 톱 카페를 만들어 주중에도 문을 열고 교인들과 방문객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동편 주차장 아래쪽에는 방 6개짜리 선교관이 건립되어 선교사님들이 쉬어 가실 수 있게 된다.

모든 건축이 내년 6월경 완공을 목표로 하는 데 건축을 책임지고 있는 최형선 집사와, 함께 건축을 위해 수고하는 여러 사람들을 위하여 많은 기도와 격려가 필요할 것 같다.

| 나형철 기자 |

■ 크리스마스 캐롤링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예수님 탄생 기쁨 '화음'

12월 23일(토) 캐롤링을 하기위해 오후 4시쯤 교회로 코람데오, 영커플, 찬양팀 등 어른부터 아이까지 스무명 가량이 모였다.

모두 들뜬 모습으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등의 찬양을 무려 4파트로 나눠서 연습해서 부르니 화음이 조화롭고 아름다웠다.

마침 출출하던 차에 권사님들께서 준비해주신 맛있는 육개장을 따듯하게 대접받고 6시에 차량 5대로 나눠 타고 6가정을 방문했다.

첫 번째 방문한 조기는 장로 댁에서 준비한 찬양을 합창할 때는 맞은편 이웃 할아버지까지 오셔서 사진을 찍기도 하시고 같이 캐롤도 즐기시며 행복해 하셔서 너무 뿌듯하기도 했다.

마지막 김환희 장로/김헬렌 권사댁에서는 예쁘게 장식된 간식과 함께 따듯한 음료도 내어 주셔서 몸도 좀 녹였고 감사했다.

해가 빨리 저서 어둡기도 하고 쌀쌀



한 날씨였지만, 주안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가 나심을 감사함으로 나누며 찬양이 울려 퍼질 때는 기쁨을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하지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

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눅2:10)

캐롤송으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삶이 매일의 감사로 이어지길 소망한다.

| 이현주 집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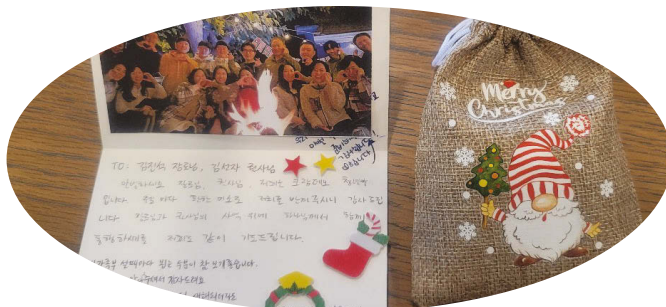
사랑의 수고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 코람데오 청년부 감사카드 이벤트

연말을 맞아 코람데오 청년부는 한 해 동안 교회를 위해 수고하신 약 60명의 사역자들과 시무장로, 사역국장들께 감사의 카드를 전달하기로 했다.

몇주전에 걸쳐 청년들이 직접 손수 감사의 내용을 적고 사진도 붙여서 예쁘게 카드를 꾸몄다. 그리고 향이 좋은 커피빈을 선별해 방향제를 제작해서 12월 24일 성탄주일에 깜짝으로 직접 전달해 드렸다.

늘 믿음과 섬김의 분을 보여주는 주안예교회 모든 어르신들께 감사를 드리고, 새해에는 더욱 영육간에 강건하시길 기도한다.



■ 리더감사 뱅킷



‘섬김과 봉사’ 따뜻한 격려와 감사의 박수를...

12월 17일 주안예교회 리더를 위한 잔치가 있었다.

하나님 앞에서 했던 일들이 목회자들의 기쁨도 되어, 수고하고 애쓴 리더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잔치인 것이 그 대로 드러나는 모습이였다. 200여명의 이름표가 놓인 좌석에 예쁜 데코가 정성을 다한 잔치상이었다.

목회자들이 연주하고 찬양하고, 시무장로들의 찬양으로 문을 열었다. 2023년 수고한 사역국장/팀장, 목자/작은목자 리더들을 위해 16일 토요 새벽 예배를 끝내고 모든 사모들이 부엌으로 오셔서 이틀동안 수고한 음식들이 맛깔스럽게 놓였다. 모든 사모들이 조용히 그러나 정성을 다해 준비한 잔치



상이었다.

단상에는 가득 가득 쌓인 생활용품부터 건강 식품까지 푸짐한 부상을 두고 담임목사의 설교 내용을 주제로 퀴즈가 계속되었다.

역시 젊은이들이 정확한 대답을 내놓아 좋은 상품이 젊은이 편으로 가니까 담임목사는 안타까우신지 앞줄에 앉아 계신 년로한 팀을 격려하셔도 실력이라 젊은이들이 탁월하다. 젊은이들이 설교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있는 것이 여실히 들어난 잔치였다.

주안예교회는 무엇을 해도 말씀 위주이다. 리더는 더더욱 말씀으로 키워지는 것을 보여주는 리더 감사회였다.

| 이예스터 기자 |



■ 영커플 리더/멘토 신년계획 모임

12월 16일 토요일, 양태섭 장로, 양영권사댁에서 영커플의 어머니이신 이미란 전도사님을 비롯한 리더 및 멘토 모임을 가졌습니다.

손수 준비하신 풍성한 식탁과 함께 한 해 동안 많은 영커플들을 우리교회에 보내주시고 영커플 공동체에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년에도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가 주안에서 성장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여러 방안들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새로운 한 해도 영커플 공동체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 2024 신임권사회장 인사

1권사회- 이예스터 회장

흔히 세상에서는 백세 시대라고 한다. 제1권사회는 72세부터 자격이 부여되는 권사들의 모임입니다.

일세기를 살아오신 권사들은 매일 바뀌는 세상을 따라가기 힘들어서 스마트폰도 없이 살아 갑니다. 이즈음은 스마트폰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인데 문화의 한 귀퉁이를 포기하며 살고 있다면 과장된 표현일까요?

교회의 행사가 있어도 남의 집 잔치처럼 쳐다보고만 있고, 앉아서 대접 받는 일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데 그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고 뒷집지고 구경만 합니다. 사랑이 위로부터 흘러 내려 가야 하는데 제1권사회가 경직되어 있어서야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없겠지요. 교회 행사가 있으면 언제나 제일 먼저 참여 하셔서 양념거리 다듬기, 식재료 다듬기 등 연세가 많으면 많은대로 할 일을 찾아하는 제1권사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권사회장 직을 맡습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권사회- 이계순 회장

이제 OC 권사회와 밸리 권사회가 완전히 '헤쳐 모여' 하여 새로운 출발을 앞둔 상황에서 오랫동안 함께한 오씨 권사님들과 나누어져 섭섭함도 있었고, 아직 마음으로는 3권사회인데 나이로 2권사회 소속이라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아 어색한 상황에서 새롭게 구성된 2권사회 회의가 있다 하여 인사나 드릴 겸 가벼운 마음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니 여기 저기서 이계순 권사 왔다고 너무 반겨주시는 겁니다. 제가 인기가 이렇게 많았나 하며 어리둥절하며 있을 때 투표 결과로 회장에 당선됐다고 제 이름이 불려지는 것이 아닙니까!! 전 절대 못 한다고 일단 밖으로 나왔지만 책임 없는 행동 같아 다시 안으로 들어 갔습니다. 제가 회장 직을 맡게 된 것이 기정 사실인 상황이라 사람이 제비는 뿔으나 일을 걱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잠16:33) 라는 말씀 따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허히 받아 드렸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밸리 권사님들과 같이 즐겁게 봉사해 왔던 일들이 생각나며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 가는데 제2 권사회가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충성된 종의 모습으로 낮은 자리에서 협력하여 잘 감당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기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 2023년 인도해주신 은혜 감사...

박성은 성도

2023년 한 해 동안 받은 은혜를 헤아려 봅니다. 예배 때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를 느꼈고, 목장 모임을 통해 아름다운 지체들과 교제했습니다. 가정에서는 아이가 주는 웃음과 화목이 있었고, 새로운 직장에서 이루어 가실 주님의 뜻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주님을 더욱 알아가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뜻보다 욕심과 아집을 앞세우는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배웠습니다. 제 삶에서 주님께 드린 것은 작은 조각들 뿐인데, 넘치게 부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 드립니다. 멋진 하나님께서 빚어가실 2024년을 기대합니다.



강진령 집사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며 지금까지 인도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해를 뒤 돌아 보니 하나님의 자녀로 자랑치 아니하고 살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2024년에는 저의 삶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세상이 주는 기쁨의 순간에도 경건한 의식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 변치않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와 가족이 하나님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한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사랑합니다.



윤세희 권사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처럼 변함 없이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으로 2023년을 마무리하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나이의 앞자리 숫자도 바뀌고 교회에서 권사의 직분까지 맡게 되니 내 마음과는 다르게 쏠살같이 달려가는 세월의 속도를 실감하게 되네요. 마음과는 달리 이제는 건강에도 신경을 써야하는 나이를 실감하게 되니 올해는 그동안 미뤄왔던 운동도 시작했습니다.

2023 년도에 특히 감사한 일을 꼽자면 엄마와 나의 기도제목이던 동생네 가정과 아버지가 올해 초부터 교회를 출석하게 된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버티고있던 아버지까지 하나님앞으로 인도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2024 년도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 가족 모두가 더욱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는 것이 나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 어느것도 내가 가진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2024 년도는 더욱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해 봅니다.



NEWSLETTER

'주안에' 는 교우 모두가 참여하여 만드는 뉴스레터 입니다. 목장, 사역팀 소식을 비롯, 간증과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누고 싶은 글을 많이 보내주세요.
iccnnews123@gmail.com

발행처: 주안에교회 문서사역국

문서사역국 명단: 오희경(국장), 나형철, 류명수, 이광영, 이성은, 이예스터, 이현영, 임용자, 조용대, 황성남(기자) 양영, 윤석중, 박민, Paul Yang (사진)

편집디자인: 김윤영

■ 2024 신임권사회장 인사

2024년 새해 더욱 하나님 의지 🙏

전호선 장로

45년 전의 세 식구가 16명의 가족으로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모두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허락하신 목장을 잘 감당 할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혜와 힘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조규진 장로

2023 년도를 마감하며 전능하신 주님의 무한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특별히 저희 부부에게는 가슴 깊이 느껴지는 해였습니다. 80 평생 처음으로 힘든 질병으로 저희 부부가 어려움을 당했으나 주님의 치유의 은혜와 성도님들의 기도로서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를 항상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을 잃지 않도록 힘을 주실 것을 간구 드립니다.



안수집사회- 문성훈 집사

2017년 7월에 안수집사가 된 후 6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동안 안수집사로서 교회의 일부를 알아오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제 안수집사 회장으로서는 교회의 더 큰 부분을 알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저의 마음은 연약하고 쉽게 지치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면 항상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하나씩 해야 할 일을 알게 하시고 방향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임원으로 섬겨 주시는 임원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충고와 조언에 기뻐하고 부족함에 감사하고 저희가 먼저 은혜받는 임원진이 되도록 함께 노력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안수집사회가 되도록 기도하고 섬김을 실천 하겠습니다. 올 한해 안수집사회를 이끌어 가신 김재동 회장님과 임원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믿음에 책임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는 귀한 섬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기도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 이 모든 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3권사회- 김혜정 회장

주안에교회 창립된지 10년이란 기간 동안 협동 권사로 많은 사역에 참여하지 못하였고 오늘 날까지 많은 시련 속에 있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을 관리를 못한 점을 주님께 고백하며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2024년 새해를 설계하는 과정이 이렇게 큰 사명인 친구권사 직분과 사역 회장까지 부족한 저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는지 저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 보았습니다. 한때 너무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 시간 그때 저에게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그 분 앞에 무릎 꿇으며 또한 그 부르심에 충성하길 다짐합니다. 이 "때" 를 설계하신 분은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며, 앞으로 모든 결정권도 결재하시는 분도 하나님 이시일 여러가지 개인적인 사정도 있지만 주님의 뜻과 권사님들의 투표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발을 내딛으려고 합니다.

제3 권사회 한 분 한 분의 은사와 지혜들이 모아져서 권사회의 사역이 아름답게 이루어져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는 한 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합니다.

4권사회- 이선민 회장

권사 직분을 이번 7월 달에 받은 새내기 권사로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부족한 것이 많지만, 하나하나 차근차근 여러 믿음의 선배님들 이신 권사님들의 도움을 받아 기도하며, 직분을 감당하려 합니다.



저희 4권사회는 기존에 권사 직분을 받으신 분들과 이번에 새로 권사 직분을 받으신 분들로 구성된 권사회입니다.

2024년 4권사회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땅에서의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를 사랑해주고, 그 사랑을 나누며 사는 4권사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말과 행동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일치하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저희로 인해 시험에 들지 않는 4권사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또한, 교회와 가정,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4권사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기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항상 겸손히 낮은 곳에서 섬기는 권사가 되길 기도합니다.

■ Resolution 2024

Expecting God's Plan

ICY has ended the year of 2023 with an exciting winter retreat held from December 28 to 30. As we prepare for the new year, ICY is excitedly anticipating God's plans for 2024. We are thrilled to see how God will change and move within all of the ICY students. For the new year, we are hoping to see growth in the student population as our building construction comes to an end. Although we may be in a different building, we know that God will continue to touch hearts and work through the students. As we step into the new year, we hope that God's unconditional love would be reflected within our students. ICY sincerely awaits the reflection of God's wisdom and goodness through His plans in 2024.



Katie Lee

New Faces New Dynamics

With the construction of our new chapel, 2024 is looking incredibly bright for ICCC. Personally, I'm really hoping for EM to gain and retain some individualism to make a bigger impact for our church community. I really want to see our numbers grow, I'm kind of tired of seeing the same people all the time! Just joking of course... Anyways I pray that God will allow our church to grow through the doors he has opened with the construction of the new building. I look forward to serving EM and the congregation for years to come, hopefully with some new faces and some new dynamics! God is good all the time! #GodDid



Minhyuk Chang

■ ICY Winter Retreat



"Be Still"

2024 crept up and came out of nowhere for ICCC, so as December came to an end, ICY embarked on their 2023 Winter Retreat at Forest Home Creekside! As we went higher and higher up the mountain, crisp air pierced our lungs and soothing chirps of wildlife resonated throughout our landscape. The retreat site featured great hiking, beautiful waters and a variety of activities that drained us of all our energy. We even got up at 6:00am for a competitive match Tug of War for a morning challenge. And don't forget about when the leaders faced off with all the students to see who can complete a hundred pushups, two hundred sit-ups, and three hundred squats! The leaders crushed the student by the way... All in all this was a great time to retreat and meet God within serenity, in stillness. Our theme this time around was "Be

Still", verse Psalms 46:10, "Be still, and know that I am God; I will be exalted among the nations, I will be exalted in the earth." For three days and two nights, ICY took time to worship and praise God while learning to obey, to have faith, and to ultimately be still. In our darkest hour, it is so difficult to stay calm and stay rational. We feel the need to take matters into our own hands rather than being still, and trusting God in silence. Thus, we get hot-headed, make decisions we shouldn't make, and say words we shouldn't say. But after learning about the importance of obedience and faith throughout this retreat with Pastor Chris' sermons and a guest appearance by Deacon Laura! ICY can start and continue to be confident in the Lord's plan. God is good! #GodDid

Minhyuk Chang



■ IC Now/ IC Power

홈리스들에 카드와 선물 ‘예수님 사랑 전해요’



12월 24일(주일) IC NOW와 IC POWER가 연합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성탄절 예배를 드렸다.

매년 성탄절예배 때는 게임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며 키즈아이들이 선물을 받았지만, 올해 키즈의 크리스마스 주제가 'Giving(기부)'인 만큼 키즈 아이들은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를 되새겨 보는 조금 특별한 시간을 갖게 되었다.

우리의 죄를 위해 하늘 보좌에 앉아계실 거룩한 분이 가장 낮은곳 말구유에서 아기 예수로 나셨음을 기억 할 때, 주님께서 우리 이웃을 사랑 하시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이웃들에게 작은 힘이지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같이 고민하였고, 올해는 추운 겨울 어려움 가운데 계신 홈리스 분들에게 개인 위생용품 키트를 만들어 드리게 되었다고 한다.

12월 초부터 아이들이 집으로 Charity 싸인업 할 용지를 가져가 미리 기부할 품목(치약, 칫솔, 비누, 손 소독제, 빗, 샴푸 등)을 나누어 각자 싸인업을 하고 12월 17일까지 가져온 기부품과 아이들이 정성스럽게 쓴 성경 구절 카드를 같이 키트에 담아 성탄절 예배 후 홈리스 사역국에 전달하였다. 카드를 쓰는 얼굴이 사뭇 진지하기도 하고, 행복해 보인다.

권사회에서 맛있게 만들어 주신 예쁜 샌드위치와 과일 도시락을 먹는 아이들 얼굴이 값진 일에 동참해선지 밝다.

이번 기회를 통해 키즈의 모든 아이들이 크리스마스의 의미와 함께 성탄절의 진정한 주인공을 잊지 않길 바라며 지금은 부모님 힘을 빌려서 기부를 했지만, 언젠가 본인의 힘으로 자진해서 기부할 수 있는 멋진 성인으로 성장해 나가길 기도해 본다.

| 이성은 기자 |

한국어 연극 · 찬양... 엄마 · 아빠들 흐뭇한 미소

■ 한글학교 종강식 및 발표회

그간 주안에 한글학교에서는 연말이면 으레, 한 학기동안 아이들의 고물고물한 손끝으로 만든 여러 작품들을 한데 모아 전시를 했는데 올해 처음으로 특별 활동 시간, 선생님들과 땀과 노력으로 열심히 준비하고 배운 장기를 부모님들에게 선보였다. 매주 준비 할 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공연의 부담감도 잠시, 밑에 반 친구들의 귀엽고 정겨운 탈춤부터 이정미 선생님의 추억돋는 하모니카 연주, 교포 발음 장착한 언니 오빠들이 선보이는 유쾌한 “흥부 놀부” 연극과 윗 반 선배님들의 프로아이돌급 뉴진스, bts k-pop 댄스와 가슴을 울리는 한국어 찬양까지... 때로는 작은 실수도 있고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도 있었지만 그 무엇보다 아이들의 눈에 가득한 열정과 열심을 가리진 못했다. 여기저기 울려 퍼지는 함성과 박수,



부모님들의 사진 세례 속 저마다 아이들의 표정에 담겨진 진심과 설렘이 현장에 가득했다. 그 동안 뭘했는지 알길 없던 부모님들의 입가에 뿌듯한 미소가 더해진 풍성한 발표회를 끝으로 이번학기를 마무리하고 한글학교는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새 학기 준비에 나

선다. 그간 보이지 않은 곳에서 늘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마음을 나눠주시고 섬겨주신 모든 분들과 함께 응원해 주신 학부모님들께 감사 드리며 새해에도 학부모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이현영 기자 |



진심어린 환대, 따뜻한 섬김... 32명의 새가족 '감동'

지난 12월 3일 벨리 채플 친교실에서는 제 29차 주안에만남이 있었다.

32명의 새가족이 초대되어 크리스마스 향기가 물씬 풍기는 분위기 속에서 아름다운 만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많은 분들은 이구동성으로 말씀 하셨다. 또한 새가족 국장인 김진석 국장과 김선자 권사님의 섬김과 사랑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고백하신 분도 많이 계셨다.

환영의 찬양과 국장님의 기도를 시작으로 맛있는 식사 후 최혁 담임목사는 교회의 목회 철학과 교회 소개의 시간을 가졌다. 하나님의 교회는 믿음이실 천이 되어야 하며 하나님께서 주어진 교회는 성경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 하였다.

즐겁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각자의 소개 시간이 되었다. 김윤수, 이경라 집사 부부는 주안에교회 교인 사업체에서 일하게 되어 이 곳에 오게 되



었는데 지난날 진리를 찾아 부처의 설법도 공부 했지만 그 이야기는 속임수였다는 것을 예수 믿은 후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

윤샤론 집사는 이 동네로 이사오면서 주안에교회를 6번이나 본후에 교회에 들어서게 되었다고 한다. 교회에 출석한 후 1부 예배에 성가대가 있게 해 달라고 기도를 드렸더니 2주 후 목사님께서 성가대를 만든다 하여 얼른 등록하고 성가대로 섬기면서 하루 하루가 행복한 신앙생활과 은혜로 살게 되었다고 고백 하였다.

이경용집사의 가족은 아틀란타에 살고 있으며 직장관계로 이지역에 혼자 살면서 매 주일날마다 단팔빵 8개씩을 사서 매일 아침 커피와 함께 먹는 기분이 쏠쏠하며 말씀의 깊이가 있으며

현재는 가장 좋아하는 성가대로 섬기고 있다고 한다.

박준영 성도는 수련회를 통해서 교회의 매력을 갖게 되었다고한다.

박용운 성도는 한국에 살 때는 부모님 따라 절에 다녔으나 21살에 미국에 오면서 힘들 때마다 내 발로 이 교회, 저 교회 찾아다니다 주안에교회에 정착 하면서 부터 주일을 꼭 챙기게 되었으며 너무나 따뜻한 환대에 교회에 보탬이 되는 삶을 살기로 결단 하였고 이번주 부터 평신도 훈련을 시작 한다고 한다.

크리스마스 절기를 맞이하여 구원자로 이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새가족 모든 가정에 함께 하기를 기도 드린다.

| 임용자 기자 |



■ 새가족 소개

설레는 예배, 하나님 임재



노윤아 집사

2023년을 돌아 보면, 제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주안예교회였습니다.

첫 예배에서 주신 큰 은혜로 하염없이.. 뜨거운 눈물이 흘렀던 그 기억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지쳐있었던 저에게 최혁 목사님의 설교 말씀은 마치 신학 대학교 특강을 듣고 있는 느낌이어서 한마디도 놓치고 싶지 않은 심정이었습니다. 그 후로, 매주 설레고 기대

되는 마음으로 주일예배가 기다려졌고, 하나님의 따뜻한 임재를 느낄 수 있는 예배를 더욱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주안예교회에서 매주 드리는 예배는 저에게 귀한 은혜의 경험의 연속입니다. 모든 생각의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위에 세워지도록 해주시고, 세상이 주는 고난과 시련에도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고난 후 연단으로, 연단 후 소망을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무한 신뢰하게 되었고, 그 강한 믿음으로 또 일 주일을 버텨낼수 있는 큰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를 주안예교회로 인도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써 다시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자녀가 될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또한 가장 큰 도전이 되었던 부분이 평신도 사역 훈련이 너무 탄탄하게 잘 짜여져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깊이 있는 말씀 공부와 영적 성장에 갈급해 있었던 저에게 주안의 삶 훈련을 받는 한 주 한 주는 한없는 은혜의 선물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써 권세를 누리게 해주시는 선물을 주셨고, 그 어떤 선물보다 제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서 더 주님을 찬양하게 되었고, 그 어떤 선물보다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주셨기에, 그 모든 감사함에 하염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이 귀한 경험으로 2024년도에도 모든 평신도 훈련을 다 받고자 하는 도전 또한 생겼습니다. 2024년도에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가정에 넘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큰 위로와 사랑의 공동체



김세민, 이한나 성도

처음 주안예교회에 온 날부터 참 많은 분들에게 환영 받았던 기억이 난다. 교회 규모도 크고 성도수도 많은데 우리 부부가 처음 온 것을 어떻게 아셨는지(?), 많은 분들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새로 왔냐고 물어봐 주시고 반갑게 인사

해 주셨다. 교회 입구에서, 예배당 입구에서, 점심 식사하는 자리에서 각 위치에 계셨던 서로 다른 분들이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는데, 그것이 감사하면서도 매우 놀랍고 신기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의 환영 속에 한 번, 두 번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 가운데 뜻깊은 순간들과 파스한 구성원들을 경험하면서, 주안예교회는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구나 느낄 수 있었다.

특히 '새가족 환영 식사'와 '주안에만남'은 우리 부부에게 큰 감동이었는데, 단순히 새로운 성도의 교회 등록을 위한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주안예교회의 사랑과 직분자들의 섬김과 헌신을 경험할 수 있는 순간들이라 참 감사했다. 목사님을 비롯해 여러 사역자와 성도들이 귀한 음식을 직접 만들고 서빙까지 해주셨는데, 순서의 처음부터 끝까지 직분을 맡으신 분들 일수록 더 적극적으로 새가족들을 섬겨 주시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다. 더 나아가 교회 비전과 역사,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나눠 주신 것 모두 우리를 '주안에 교회' 성도로서 배려해 주신다는 느낌을 받아서 감사했다.

또 매주 영커플 모임에서는 미국에 오고 나서 다른 곳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큰 위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다. 아무래도 비슷한 또래의 부부들이 모여 서로가 서로를 공감할 수 있었던 것도 큰 위로가 되었겠지만, 무엇보다 목장 모임이 감사했던 것은 매주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바탕으로 주 안에서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었다. 내 오랜 친구들과도 나누지 못할 이야기들을 새로 알게된 목원들과 나누고 있는 우리 부부의 모습을 보면, 또한 우리 부부를 위해 기도해주고 서로 도움을 주려는 목원들을 생각하면 주의 사랑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 같다.

이제 막 주안예교회에 적응하는 단계임에도, 벌써부터 교회를 통해 주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다. 우리 부부도 주안예교회에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흘러보낼 수 있는 주안에 가족 구성원이 되길 소망한다. 다시 한번 목사님과 새가족부 담당자 분들을 비롯해 우리를 환영해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우리 부부가 교회에서 잘 적응하게 도와준 영커플 3목장 구성원들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한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가득하...



■ 한글학교

한글학교 송년 모임을 김형선 권사 댁에서 가졌습니다. 정성으로 준비하신 샐러드와 약속한듯 저마다 준비해 오신 사랑 가득한 선물과 귀한 음식으로 더없이 따뜻하고 풍성한 연말 모임이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변함없이 자리를 지켜주신 선생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 이현영 기자 |



■ 영커플 2목장

2023년 한해를 돌아 보며 영커플 2목장 식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목장 식구들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2024년 각 가정에 하나님의 창조적인 계획과 이루심을 기대합니다. | 장주성 집사 |



■ 영커플 3목장

12월 16일, 정민진/이연주 성도의 집에 영커플 3목장이 초대받아 연말 모임을 가졌다. Potluck 형식으로 각자 준비한 음식을 함께 먹고, White elephant 선물 교환식도 하면서 서로에게 감사한 마음을 나누는 따뜻한 시간을 보냈다. | 김윤영 기자 |

배우고, 훈련받고 삶의 변화로 한걸음

일주일간 정해 주는 성경말씀 3장씩 매일 반복해서 읽고 나누는 ‘거룩한 독서’, 매주 배울 부분 연습과 복습, 전 주에 배운 내용에 대한 소감문, 챕터마다 훈련받은 내용 중 생활에서 실천해 오기 등... 주안예살이 사전에 숙제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긴 했지만 생각보다 더 많았고 부담이 되기도 했다.

그런데 한 주 한 주 서로 느낀 것들을 훈련 시간에 나누면서 큰 위로와 은혜를 받게 되었다. 많다고 느꼈던 ‘숙제’가 없었다면 느낄 수 없는 은혜와 감사였다. 그러다보니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은 사라지고 편한 마음으로 숙제를 할 수가 있었다.

처음 교제를 받고 전체를 훑어 보고 대충 다 아는 내용이라고 생각했었는데 훈련을 받으며 내 생각이 오만했다는 것을 알았다. 내가 제대로 깊게 알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고, 아는 거 말고 정말 중요한 것은 ‘실행하는 것’이라는 것도 새삼 배웠다.

모든 훈련이 다 좋았지만 유독 기억에 남는 훈련은 3과 ‘믿음과 용서’이다. 3과 믿음과 용서를 통해 진정으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았을 때, 죄의



국경진 집사

짐을 다시 짊어지지 말고, 그 죄에서 자유로와졌음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이라는 걸 새삼 배우게 되었다.

그리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죄를 지었을 때는 바로 회개의 자리로 나가는 것을 생활화 하는 것이 나만의 구체적인 실천 방법임을 배웠다.

또한, 말씀 안에서 생각을 지키는 게 순종인데, 사탄이 던져주는 나쁜 생각이 머리에 동지를 틀지 못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쁜 생각을 쫓는 방법도 기억에 강하게 남는다. 생각과 말과 행동의 영역에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함을 배우고 난 후, 일주일간 ‘순종의 말, 사랑의 말’을 가족이나 동료 등에게 실생활에서 실천하는 과제가 있었다. 과제 때문에 신경을 쓰다보니 무의식적으로 말을 내 뱌고 바로 아차 싶어서 말을 고치기도 했었는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 생각을 지켜내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도 바뀐다고 훈련받으며 당장은 더더도 계속

훈련하다 보면 내 생각을 지켜주시는 주님으로 인해 내 말도 바뀔거라는 확신도 생겼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마태3:8)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에베소서5:18) 이 두 말씀은 나에게 도전을 주었던 말씀이었다.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고, 누우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삶이 변화하도록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 결단하고 노력해야 함을 일깨워 주었다.

인도자님을 포함한 여섯명의 훈련생들은 줌으로만 훈련을 받았는데도 그 시간이 기대했던 것 보다 훨씬 은혜로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숙함이 느껴졌다. 살아온 환경도 처한 상황도 모두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건 ‘하나님께 받은 은혜’라는 공통분모 때문일 거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모두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지막 줌미팅을 마치고 주일 아침에 모두 만났는데, 반짝거리는 얼굴들이 정말 반갑고 감사했다. 내년 초쯤 시작할 예정이라는 주안예살 2권도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참여할 수 있길 소망한다.

■ 제3 권사회 송년 모임

제3 권사회 송년 모임이 12월 9일에 윤혜수 권사댁에서 있었다.

권사들이 요리한 맛있는 점심 식사와 2023년의 활동 보고와 결산 보고를 끝내고 10명의 인원 제한을 미리 두고 2023년도에 감사를 자원해서 간증하였다.

지난 10년을 동거 동락 하며 교회에 모여 기도하고 봉사했던 OC 채플의 권사들이 주축이 된 제3권사회였으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이 눈물이 되었나보다.

우리의 그루터기는 하나됨, 서로 섬기기, 기도 없이 봉사할 수 없었던 절박함 속에 위로와 기쁨이있었기에 뒤를 돌아보는 시선에 눈물이 따랐다.

토요일 새벽 예배 때 강단에 올라 기도하는 OC 채플 권사들의 기도소리를 들으면서 이 분들의 열정과 봉사가 이



기도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벨리 신임 권사의 간증에 OC 채플 권사가 들으며 눈물을 흘치기도 했다.

제3 권사회는 자발적인 도네이션이 있어서 넉넉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고 덕분에 꾸집한 송년회를 가질 수 있었다. 남모르게 헌금한 손길에도 하나

님의 복이 임할 것이라고 믿으며 감사한다.

각 영혼에 위로와 감사가 넘치니 모두가 하나되어 찬양을 하고 어린이가 처럼 앓고 일어서며 게임하드로 즐거운 송년회를 마칠 때 서로를 향한 감사로 가득채웠다.

| 이예스터 기자 |

■ 음악산책/ 때 저물어 날 이미 어두니...

‘삶의 끝자락에서 울리는 찬송시’

1921년, 타이태닉호가 침몰하던 순간에 배에 뒹군 사람들은 함께 찬송을 불렀다. 2009년, 끔찍한 항공기 사고의 희생자 가족들은 네덜란드의 한 공항에 모여 찬송을 부르며 애도했다. 찬송가 531장 〈때 저물어 날 이미 어두니〉는 참담한 현실을 마주한 순간에 주님의 동행을 간절히 구하며 불렀던 찬송이기도 한 반면, 축제의 자리를 기념하며 부르는 찬송이기도 하다. 이 찬송은 2021년 런던 올림픽 기념식에서 울려 퍼졌고, 영국에서 FA컵 축구 결승전이 열리는 날에는 경기장에 모인 사람들이 경기 시작 전 모두 일어나 부른다. 심지어 힌두교 국가인 인도에서조차 ‘공화국의 날’이라고 불리는 국경일에 이 찬송이 연주된다. 길흉화복의 모든 순간을 주님께 의지하고자 하는 염원이 담긴 찬송이 바로 〈때 저물어 날 이미 어두니〉이다.

스코틀랜드 출신의 영국국교회 사제였던 헨리 프란시스 라이트(1793-1847)는 결핵으로 더 이상 사역을 이어갈 수 없게 되고, 삶의 끝자락에 가까이 다가섰음을 느끼며 한 편의 시를 완성한다. 요양을 떠나기 전 딸에게 남긴 〈Abide with me : 나와 함께 하소서〉라는 제목의 이 시는, 임종을 직감한 연약한 영혼이 하나님께 드리는 마지막 간청을 담은 찬송시이자 절절한 기도문이기도 하다. 이 찬송시는 윌리엄 헨리 몽크가 1861년 작곡한 ‘저녁(Eventide)’이라는 곡의 멜로디에 맞춰 불리다가, 총 7 연으로 이뤄져 있는 원문 중에서 1,2,5,7 연을 가사로 붙여 편집하여 4절 가사로 구성된 정식 찬송가가 되었고, 번역되어 한국 찬송가에 실리게 되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다. 인간은 여전히 추악한 죄인이지만 십자가 보혈을 통해 자녀로 구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현존과 동

행을 인정하는 사람은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며 부르심에 순종하는 일상을 살아간다.

경건한 삶이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이다. 성경은 이방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제사장들보다 경건하다고 전한다. 성경이 예루살렘의 종교지도자들을 체처두고 로마 군인 고넬료를 경건하다 평가하는 것은, 그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이다. 경건의 외양은 화려하나 교만에 빠져 내적 중심이 결여되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외식하는 이중 인격자에 지나지 않았다. 우리의 기도가 어눌하고 찬양이 유려하지 않더라도 나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단단히 다져져 있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경건의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은 결코 멀리 계시지 않으며,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는 분이 아니다. 내가 오롯이 홀로 남겨지는 순간에도, 주님만은 언제나 나와 동행 하신다. 2023년 한 해를 돌아보며 언제나 나의 곁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 앞에 진정으로 무릎 꿇고 예배하며 경건의 삶을 실천하도록 다짐하는 2024년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

| 황성남 기자 |

■ 주안에 네이버

홈리스 시설 찾아 성탄절 만찬 대접

지난 12월 24일(주일) 오후 5시, 주안에 교회 홈리스 사역팀(팀장 배석원장로) 10여명의 팀원들은 약 70명분의 음식을 준비하여 가까운 Trebek center로 가서 홈리스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매달 한 번씩 벌써 4번째 방문인 홈리스 섬김사역은, 이번에는 특별히 성탄절을 맞이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자 맛있는 밥과 불고기, 그리고 디저트로 치즈케익을 준비하였습니다.

현지 직원의 안내로 10여명의 팀원들은 현지 시설을 돌아보며 설명을 듣고, 현재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저들도 하나님을 만나고 더욱 나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였습니다.

5시 15분경 현지에 도착하여 음식을



준비하고 6시부터 음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모두 107명의 사람들이 이 시설에 거주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식사를 한 인원은 50명 정도 되었습니다.

규정상 홈리스들의 프라이버시를 위해 저들의 사진을 찍을 수는 없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 보였습니다. 이를 위해 정기적으로 재활교육도 하고 또 직업을 알선해 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제 1년 반 정도 된 시설이라 그런지

매우 깨끗하고 정리가 잘 되어 있었고, 화장실이나 세탁실 운동시설과 컴퓨터실, 그리고 독서실까지 매우 훌륭한 시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향후 주안에교회 홈리스사역팀에서는 이런 시설에 한달에 두번씩 찾아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벨리에만 7군데의 이런 시설이 있다고 하니 우리 교회에서 더욱 많은 봉사자들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이광영 기자 |